

배분팀워크샵회의록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 사업비조정: 사업비 조정의 문제. 거의 모든 단체 조정됨. 예산삭감이 당연시되는 과정. / 예산을 더 늘려야 함

2) 모금: 액수의 확대. 배분사업의 결과가 좋아야 모금도 잘될 수 있는 방안. 예:보고서도 돌리고 설문지도 함. 모금과의 연계를 구체화하는 시도 필요. 개인기부만 하지 말고, 기업도 뚫고 해야하지 않나. 만만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중에서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음.

3) 사업논의와 결정이 느린 점 : 예 사업비2억-결국 1억5천. SBS기금 포함되어 기금이 2억으로 확정됨. 심사가 다 끝나는 과정에서 10%를 떼어야 한다는 것. 논의가 항상 한발 늦음.

4) 성과나눔 컨설팅: 컨설팅할때에 구체적인 시도에 대한 계획 - 위원회 구성 빨리 해서, 지속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방문하거나, 다른 계기를 통해 3,6,9,12월 등 하던가, 최종평가에 반영하는 방식. / 참여하면서 금전적이나 로열티 필요. 위원에 대한. / 어떤 방법? / 성평등소위: 구성안. 재단 내부에 두는게 아니라, 자문가그룹은 지역에서 단체와 관계있고, 주제에 적합한 분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려.

5) 기획공모: 모두가 교육과정임.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지. 풀뿌리,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례 및 모델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음. 이를 교육화(기획단계에서)

6) 지역단체 선정관련 : 지역과 사전스크리닝 별도로 할 예정.

7) 사업설명회 특강이 항상 있었음 : 프로포절 스킬 등. -> 재단의 연관된 사업을 이용하는 것. 창조적 기획력/ 프로포절 작성 등. 도움닫기 프로젝트에서 강화내는 방안.

8) 심사위원 선정 부탁 후 자료 보내드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음. 심사위원의 기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실무팀의 문제임. 방향과 기준을 갖도록 하는 워크샵 필요. 이를 위해서는 재단에서 자유,기획공모에 대한 방향을 가져야 함. (작년의 경우, 사전심사회의) 심사위 구성시 배분위 안에서 꼭 해야하는지, 외부위원 결합필요.

9) 단체의 고유사업 지원: 교육과 워크샵이 대부분임. 아젠다 셋팅이 별로 없음. 고유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0) 사업비: 매년 2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었으면.

11) 사업심사상: 준비/과정상 개선사항이 나뉨. 준비-신청사업비의 감액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야함.

12) 선정단체의 다양화: 동일단체 제한규정 두는 것. 빨리 도입.

13) 공모 이전에 심사기준이 있어야 함. 10월에 공모이면, 8월에 심사기준이 나와야 하고, 그 기준이 공모에 반영되어야 함: 기획단계에서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함.

14) 여협: 핵심이해관계자-주변부이해관계자. 주변부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필요.

15) 지역할당: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역할당 30%.

16) 최종평가과정: 다음 사업심사시 고려하는 기준이 됨. 최종평가는 받지 못한채로 사업선정하는 일정을 보완하는 방안 필요. 성평등 평가작업이 위원이 끝나고 진행하는 것. 중간현장방문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음. 평가를 안할 수는 없으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17)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12월이 연말결산.

18)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뭔지 들었을 때 감이 오지 않음.

19) 눈물나는 모금 -> 의식있는 기부자 모임화.

20) 재단 홍보관련: 더 정비 필요.

21) 개척해야할 사업이 늘상 빠지는 문제: 기획공모 사업도 기업이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 촉발 이후에 진행. → 남성대상 교육프로그램, 청소년관련 특화프로그램, 여성과 문화사업, 장애인 사업은 없음. 기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업. 여성노인 이슈 등. 미디어. (남성,청소년,장애인 등은 프로포절 다 들어왔었음. 스크리닝에서 모두 탈락.)기획공모에 아젠다 포션을 두자. 아니면 기획공모

자체가 조직재생산으로만 가게 됨. 이슈 자체가 11년 여성재단 역사속에서 변화하지 않은 듯 함. 이슈가 변화하는게 느껴지는데 반해 여성재단은 변화가 없음. 풀뿌리도 세밀해지고 국제연대도 심화되는 것. 관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필요함.

2. 수시지원사업

1)수시지원 기준: 인큐베이팅-기획공모때 넣을 수 있으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수시사업 기준은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No하셨음. 심사기준표에 일일이 점수를 입력하시면서 심사하시라고 하는게 의미가 없음. 심사기준 문제만 적은 것임. 그래서, 위원회를 꾸리자.

인큐베이팅은 들어온지 얼마 안됨. 다시 빨지말지 결정 안됨. 결정해야함.

2)인큐베이팅 기준마련 필요

3)성평등사회에서... 5%. 수시기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1단체당 500만원임. 1단체당 200-300정도로 해야함. 예산에서도 표시가 되어야 함. 긴급이나 인큐베이팅을 여성재단에 다 할 수가 없음.

4)수시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함: 5%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므로. 홍보하자.

5)인큐베이팅에 논의: 위원장님 의견 등 인큐베이팅 삭제하자는 의견.

3. 태평양시설개보수사업

1)아리따움인유: 디자인팀이 불안함. (컨트롤되지 않음) 중요도가 올라가는 것- 홍보효과임. 홍보팀도 컨트롤 안된다는 것. 단체 자체적으로 지역홍보를 하도록 조직. 이를 바탕으로 아모레를 보다 압박. 단체가 구체적인 홍보스토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필요.

2)여성재단 홈페이지에도 우리도 보다 전후 비교사진등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올리도록.

3)공모시에 아리따움 할때에는 단체에 부담을 줘도 됨. 홍보와 관련되어.

4)아모레퍼시픽이 여성관련 지원사업을 많이 관심을 갖고 함. 좋은 파트너. 관계 안착. 희망가게 프로젝트 등. 여성을 비중있게 사회공헌하는 곳임. 이곳과, 시설개보수로 파트너가 되지만 그 외의 사업으로 파생해서 활동하는 고민을 하는 것 필요.

5)지역사업본부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역할을 함. 나눔메신저. 사업하면서 지역단체와 파트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 장점. 파트너십에 대한 전반적 확산.

6)2011년이면, 2010년에 공간 바뀐곳, 2009년 공간 바뀐곳이 어떻게 역할하는지 알려주는 것. 당사자 단체도 부담을 갖고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공감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사업설명회할때에 자기 공간이 바뀐 것을 발표하도록. 웹레터와 계간지에도 홍보하도록.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성과를 맥락화.

-----> 웹레터, 계간지 등에 홍보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7)여성인권단체가 아닌 여성단체를 만나는 것. 이용시설 등. 확장통로가 됨. 이분들과 여성재단이 핵심부 이해관계자, 주변부 이해관계자가 있음. 관계를 만들어가자.

4. 장학사업

1)재단 포션

2)유한킴벌리 기부처와의 의사소통. 관계.

3)유한킴벌리 진행의 사업이 여성이 많은데, 미래포럼 이외에는 파트너가 많이 되지 못함. VS 유한킴벌리는 저출산에 관심 높음. 임원이나 주주를 설득할때에는 사회공헌이 설득력이 없음.

4)사업의 직접적 관계자일뿐 아니라, 기업의 방향과 사회공헌의 방향 연계. 다른 관심사 부분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기획능력을 함께 가져갔으면 함. 저출산고령화 관련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심화했는지.

5)여성운동아카데미: 걱정.

6)전라,강원: 광주나 춘천. 교육을 가장 못받는 곳은 광주. 지역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는 목표.(현재 강사진이 서울 멤버) 지역에서는 할당?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호남으로 간다고 하면 발굴의 의미에서 포션을 두는것도 적정할 듯.

7)우림필유: 모금해야 함. 글로벌사업기금 이야기할 때 우림필유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8)IBM: 2,000만원. 리더십개발원에서.

9)네트워킹 파티

5. LG이노텍 '희망멘토링'

1)제주도 혹은 수련원 등에서 캠프

2)사전교육시, 임직원이 경험을 나누는 시간 필요.

3)멘토와 코칭이 한아이에게 가는 것은 안하기로 함. 기업의 중역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시각도 넓어지고 뿌듯해하는 측면.

4)사전교육의 필요성. 코칭과 멘토의 자격. // 광주Y.

6. 미혼모지원사업

1) 아이돌봄 필요.

2) 당사자조직-인식개선까지. 여성재단의 미혼모사업에 대한 토론의 자리 필요.: 올해 만들자.

3) 다문화소위처럼, 가족관련 소위. 아이디어를 보태주실 분들. 당사자뿐 아니라 대안가족까지 확대되어야 함.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그런 위원회가 필요함. 미혼모가족협회와는 다른 재단의 위원회. - 수시로 한다면 배분위원+전문위원.

4) 이미정박사. 윤홍식교수(보편적 복지/사회투자국가전략)

5) 가족담론을 만드는데 애쓴 사람. 송다영 위원.

6) 여성운동으로서의 사각지대인 미혼모 이슈가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확대. 포괄적으로 하는.

7) 미혼모 관련하여 메인사업은 아니더라도 관련하여 일을 하는 단체? 없음. 시설 등은 있었음.

8) 25세 이상의 미혼모들이 이하의 미혼모 대상에게 대상의 통합이 되지 않는. 지원이 나뉘는 것.

9) 당사자조직육성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25세 이상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이슈가 다를 수 있음. 관심을 조직화하는. 향후 방향을 만들어나가는 시기. -> 성소수자나 장애인 운동처럼 이 분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목적인가. 그렇다.

10) 재단의 운동 사각지대가 이혼한 여성, 재혼한 여성 별로 없음. 한부모사업으로.... 여성가장 사업이란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음. 생애주기별로 접근하는 과제속에서 통으로 놓고 보면 접근이 가능할 듯.

11) 운영위원회+회원들(당사자 미혼모) 상근으로 일하는 분들은 2명임.

12) 예산에 대한 규정이 없음.

13) 단위 만드는 것 필요. 대안가족소위와 같은 형식으로. 여성가장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14) 저출산 키워드에서 여성재단이 접근이 필요. 그 사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하자.

15) 여성경제사업팀의 사업들: 경제세력화 파트로 국한하는게 좋은지.

7. 다문화가정안전망프로젝트

1)토론회: 2월에 할 예정. 심터관계자 토론.

2)전문상담원육성: 1000만원.

3)

8. 문화나눔

1)6개월 진행

2)홍보아이디어: 싸이월드 클럽->블로그

3)주기/ 언제 한다는 것을 아는 것 필요.

4)블로그를 만드는 것: 문화나눔을 받는 분들? 활동가/자활/복지관.

5)재단 기부자 연계.

6)기흥팀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9. 글로벌

- 1) 사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후원처 발굴 시급: 골드만삭스(여성경제세력화), 기부투아시아, 지마켓, STX, 포스코/파트너기업 중에서도부터 시작하고, 이사장, 총장도 함께 모금에 결합해야 함
- 2) 사업형태: 집중과 선택을 진행해야 함 (장학사업) / 개인연수의 경우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함에 따라 개인 만족도는 높으나
그 이후의 성과나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음. 단체 혹은 활동가 등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함.
글로벌사업에도 기획공모로 제한을 해야함-->자칫 연수사업화 될 수 있음 / 우선사업을 선정해야 함
기업의 구미에 맞는 글로벌사업을 녹여낼 필요 있음
- 3) oda와 연관된 글로벌사업 모색 필요
여성재단 전통적 글로벌사업
- 4) 단체와 글로벌사업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음--> 추후 기획 때 부터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사업의 총괄적인 맥락화 필요
- 5) 글로벌 사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으니, 개척형 사업과 성과형 사업으로 진행
- 6)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액으로 진행할 경우 단체 배분사업으로 진행
- 7) 기업 후원처 개발 시 특정 프로젝트를 정해서 모금처를 개발. 모델을 만들어, 추후 다양한 모금처 발굴 ex> 해외여성가장
- 8) 삼성사회봉사단과 글로벌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개발할 필요있음

10. 생명보험기금 - 다문화가정직업창업지원

- 1) 주관팀 결정 필요

11. 다문화가정출산지원사업

- 1) 저소득층 이주여성에게 출산지원 필요
- 2) 1년에 3회 지원. 기금소진시 3회 다 채우지 않고 종료.
- 3) 남편, 시부모에게 이주여성 출산문화 교육 필요

13. 다문화가정사진전

- 1) 후원처발굴: 지마켓

14. 기타

- 1) 모금TF의 방향 및 목적 부재
- 2) 모금TF 주도팀 부재

<2011 배분팀 사업계획>

- 1) 한국여성재단 아젠다와 미혼모사업의 연계 마련
- 2) 홍보-기금팀과 연계하여 진행
- 3) 배분프로세스 변화: 기획→사업진행→마무리 단계의 평가 필요
- 4) 연구사업의 무용지물화→활용도 현저히 낮음
- 5) 연구사업의 공모화
- 6) 배분사업 중 연구사업 추가 가능성
- 7) 영상물 활용도 고민
- 8) 날자 여행사 공개 입찰로 선택
- 9) 결과보고서 제작